

실종된 마음의 양식…찢기고 얼룩 범벅 복구 불능 수두룩

핵심부분 통째 없어지기도 작은도서관 기증·고물 판매 공공의 책 소중히 다뤄야

내 책이 아니면 상관없다?

'책을 읽는' 가을, 광주지역 도서관 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도서관 의 책들의 훼손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. 한해동안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폐 기되는 책만 3만권이 넘는 것으로 나타 났다.

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 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공도서 관 17곳에서 폐기 처분된 도서는 ▲ 2010년 3만648권 ▲2011년 2만9902권 ▲2012년 4만5824권 ▲2013년 3만 5800권 등 총 14만2174권에 달했다. 올 해도 광주시는 지난 5월 지난해 버리지 못한 도서까지 합해 1만8733권을 고물 상 등에 폐지로 넘겼다. 이들 도서는 기

공공도서관 17곳 책 폐기 보니

- ▲2010년 3만648권
- ▲2011년 2만9902권
- ▲2012년 4만5824권
- ▲2013년 3만5800권

4년간 14만2174권

증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훼손됐었다. 한 해 평균 13만권 정도가 새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20%가 넘는 책이 고물상으로 버려지는 셈이다.

폐기 대상에는 글자가 바랠 정도로 오래된 책이나 최신 정보를 담아야하 는 전문서적도 있지만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도 적지 않다. 그만큼 훼손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다.

커피, 라면 국물을 쏟아 얼룩을 묻히 거나 형광펜이나 색볼펜으로 '자기것' 인양 줄을 그어놓은 책, 아예 '핵심' 부 분을 찢어버린 책 등 종류도 다양하다. 어린이 도서 표지는 대부분 딱딱하고 두꺼운 소재여서 책을 짓이기다 보면 표지와 내용물이 다소 쉽게 떨어질 수 있다. 사서가 테이프로 붙이거나 천으 로 오물을 닦아내지만 한계가 있다.

중앙도서관 정보자료실 변승연씨는 "자격증 교재를 빌려간 뒤 시험을 볼 때까지 반납하지 않고 개인 참고서처 럼 보는 대출자 뿐 아니라 수험서를 대 출하면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우가 워 낙 많아 아예 이론서 위주로 구입하는 형편"이라고 말했다.

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은 책은 '고 물' 신세가 된다. 버리는 책 대부분은 1 kg당 100원 정도다. 중앙도서관의 경 우 지난 5월 29일에는 폐기 대상 도서 6063권(3710kg)이 재향군인회에 1kg 당 40원에 폐지로 팔렸다.

고물상으로 가는 책들은 도서관측의 공지 등에서 '새 주인'을 찾지 못한 경

공공도서관의 경우 광주에 있는 작 은도서관 377곳에 전화나 공문을 보내 책을 받을 의사를 타진하기도 한다. 이 렇게 전달되는 수준은 1회당 작은도서 관 6~7곳 정도로, 1년에 3~4 차례, 한 번에 200~500권 정도다. 작은도서관 으로 기증되는 책 비율은 폐기대상의 20% 정도다.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산 수중앙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9곳 에 3841권을 기증한 바 있다.

한편,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은 무등도 서관 등 시립 3곳, 중앙도서관 등 교육 청 관할 도서관 5곳에 구립도서관 9곳 등 17곳으로, 여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216만8000권이다. 이 중 지난해 일반 시민들이 306만8960권이 빌려갔 /백희준기자 bhj@kwangju.co.kr



'저라도 닷컴' 홈피 해킹 일베 회원 등 18명 입건

광주남부경찰은 20일 월간지 '전라도닷 컴'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로 일간베스 트 저장소(일베) 회원 고모(20)씨 등 18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.

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고씨는 지난 8월30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집 컴퓨터로 전라도닷컴 웹사이트를 해킹해 관리자모드로 접속한 화면과 아이디·비 밀번호를 최초 유포한 혐의다.

고씨의 게시물을 확인한 박모(16)군은 같은 날 새벽 이 글을 스크랩해 확산시켰 으며, 임모(14)군 등 16명은 전라도닷컴 사 이트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해 게시물을 삭 제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.

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세월호 참사 특집 '세월호 잊지 않기' 게시판의 기사 50여건 을 삭제하고 제목 일부를 '홍어'로 변경,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. 특히 중·고교생 8명과 대학생 4명 등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, 20대 남성들과 현역 군인 1명도 포함된 것 으로 드러났다.

/박기웅기자 pboxer@kwangju.co.kr

한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

민들이 수년 전보다 오히려 많아진 것으로

나타났다.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

책연구실장은 20일 낸 '안전의식 실태와

정책과제' 보고서에서 "사회 인프라가 고

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의식은 하락하

연구소가 지난 8월 전화설문으로 안전인

식을 조사한 결과 '우리 사회의 안전인식

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'라는 질문에

응답자의 50.9%가 '매우 부족하다'고 답

했고, 44.1%가 '다소 부족하다'고 답했다.

이를 지수화한 결과 한국사회의 안전의

식은 100점 만점에 17.0점인 것으로 나타

났다. 2007년 비슷한 조사에서 안전의식

지수가 30.3점인 것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

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것이다

우리 사회 안전의식은?

시민 95% "부족하다"

에인 차량 무상수리 서비스 지원사업

장애인차량 무상수리

광주시 북구청과 한국폴리텍V대학(학과장 강대진 교수)이 제2캠퍼스내에서 장애인차량에 대해 무상 점검과 차량 소모품 교환 등 무상 수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성범죄 징계 교사 5명 중 3명 버젓이 교단에

광주·전남북 2010년 이후 53명 징계…31명 계속 근무

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5명 중 3명 은 아직도 버젓이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

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'성범죄 교사 현황' 자료에 따르면 광 주·전남·전북지역에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3명이었다. 이 중 24명은 학생 등 미성년 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

특히, 징계를 받은 53명 가운데 파면·퇴 직·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22명

이고 나머지 31명(58.5%)은 아직도 학교 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. 성범죄 를 저질렀지만 정직 등 행정처분 뒤 다시 교단에 복직한 것이다.

이들 중 상당수는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 자인 제자였다. 전남 공립 A중학교 교사 는 제자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・성폭행 하고도 견책에 그쳤고, B중학교 교사도 제 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 지만 정직 1개월에 그쳐 교단에 복귀했다.

광주의 경우 이 기간동안 5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, 이 중 3명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. 전남은 23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고, 이 중 8명이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.

교육계에서는 미성년인 제자를 상대로

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견책이나 정직 등 의 가벼운 징계로 끝나다보니 학교에서 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.

한선교 의원은 "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버젓이 학교에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느 냐"고 반문한 뒤 "성범죄는 재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범죄 교사는 공소시효 와 관계없이 무조건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"성 범죄 교사를 무조건 퇴출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한다"며 "하지만 법률적 판단과 자문 을 거친 결과,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"고 해명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"40억원 사기" 고소장…피해자 30여명 달할 듯

사기단의 꾐에 넘어가 "40억원에 이르 는 돈을 떼였다"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 찰이 수사에 나섰다.

광주북부경찰은 20일 이모(51·광주시 북구 운암동)씨 등 15명이 최근 "영농회 사를 가장한 사기단에게 속아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에 이르는 큰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"며 고소장을 제출,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.

경찰은 이날 이씨 등 피해자 진술 등 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외에도 최소 30명 이상이 40억원 이상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.

이씨 등 피해자들은 영농회사를 운영 하는 주모(51)씨 등 5명 이상의 사기단 으로부터 "우리가 운영하는 영농회사 명의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물건을

판 것 처럼 카드를 긁고 수수료를 제외 한 뒤 돈을 내주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 다. 그런데 당장 여유자금이 없으니 회 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"는 꾐에 넘어 가 돈을 건넸다.

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커진 것은 주 씨 등 사기단이 돈을 건네받은 뒤 애초 약속대로 10%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 믿 음을 산 뒤 수차례에 걸쳐 더 많은 돈을 빌려갔기 때문이다.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건넨 것으로 알 려져 피해가 확산될 조짐이다.

경찰 관계자는 "주씨 등 사기단이 돌 연 종적을 감춰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규모를 감안,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 을 방침"이라고 말했다.

>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 /김형호기자 khh@kwangju.co.kr

'환풍구 참사' 유가족-이데일리 보상 합의

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, ㈜이 데일리, 경기과학시술진흥원은 사고 발 생 나흘째인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.

이재명(성남시장) 사고 대책본부 공 동본부장과 한재창(41·희생자 윤철씨 의 매형)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 전 10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 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 어 이같이 밝혔다.

한재창 간사는 "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 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 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 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" 고 말했다.

그는 "본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 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 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 다"고 설명했다.

또 "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 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, 관련 당사자 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 망한다"고 덧붙였다.

"내 딸 찾으러"…차 몰고 콜라텍으로 돌진한 엄마



○…차를 몰고 콜라 텍 입구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.

○…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 모(여·48)씨는 지난 19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H성인콜라텍 1 층 입구 앞까지 남편 소유 아반테 차량

으로 돌진해 손님 50여 명이 놀라 대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.

○…종업원 박모(42)씨의 신고로 현행 범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"내 딸 이 콜라텍에 들어가는 걸 봐서 따라갔 다"고 횡설수설.

/백희준기자 bhj@kwangju.co.kr

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

1.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

<경매 8계>					
		매 각 물 건	감정평가액		
	물건 번호		용 도	최저매각가격 [단위:원]	비고
[아파트]					
2014타경 12117	1	서구 금화로115번길 9, 201동 1층 107호 [금호동,한국아파트] 59.985㎡	아파트	133,000,000 133,000,000	2014타경14571[중 복]
2014타경 13127	1	서구 쌍촌동 969-12 1동 5층 1호 55.85㎡	아파트	64,000,000 64,000,000	
[단독주택,다가구주택]					
2014타경 11237	1	북구 신안동 745-3 26.11㎡ 제시외 방 등 17.1㎡[신청채권자김병준으로부터매수신청 있음,금액10,000,000원]	단독주택		건물만매각.제시 외건물포함매각
2014타경 15000	1	장성군 남면 덕성리 713 591㎡ 장성군 남면 황토단감로 475-8 146.64㎡ 제시외 다용도 5㎡[제시외건물포함매각]	대 단독주택		일괄매각.목록1조 경및석축부분포함 매각
2014타경 15567	1	서구 마륵동 478-1 426㎡[일부타인점유] 서구 원마륵2길 8-7 74.38㎡ 제시외 창고 등 97.5㎡[일부타지상소재]	대 단독주택		일괄매각.제시외 건물및목록1수목 포함매각
[연립주택/다세대/빌라]					
2014타경	1	동구 산수동 401-24 2층 201호 45.8㎡	다세대	45,000,000	토지별도등기있음

- 사건번호 물건 최저매각가격 비고 소재지 및 면적 [㎡] 황농경지등][공유자우선매수퀀행사제한][6,707,820 요.잔디포함매각 11961 남구 서동 20-5 67㎡[현황전] 동소 20-6 33㎡[현황나대지[현전] 43,215,000 일괄매긱 2014EF2 43,215,000 13288 69,976,800 분묘소재 13400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11 823㎡[현황일부 2014타경 ,일부묘지][농지취득자격증명요,공유자 17,380,000 함매각.공유자최 우선매수권행사제한] 재철지분1/2전부 13691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723 430㎜ 16,361,400
-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독 열 내 각소 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내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충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. 공유자가 민사진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중금의 미납으로 실효되 을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신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.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명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. 매각기일 : 2014, 11, 5, [수] 16:00 매각정소 : 광주지방법원 입활법정 메가가상선 : 광주지방법원 입활법정

- 활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.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. 6.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
-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. 다만,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,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,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.
- ① 대각대급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, 각종 저당권,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.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 지처를 청부하고, 국민주택재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. ② 매각대급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채무자, 소유자 또는 대황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 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8. 주의사항
- 5. 수의사항
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점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, 사업 자동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, 한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권 민사집행[신청]과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④ 입찰범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한에 필요하오나 신분증과 도공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,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참한 위의 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. 단,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.
- 입찰에서 제외됩니다.)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,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
-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

2014. 10. 21. 사법보좌관 박종희